

해수부, 연안여객선 공영제 도입 검토

정부·지자체가 낙도항로 운영·선실 현대화도

전남, 55개 항로 92척…서비스 대폭 개선될 듯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사고의 한 원인이었던 여객선사의 영세성 문제를 해결해 안전을 확보할 방안으로 연안여객선 공영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침이 확정되면 전국 연안여객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전남도의 연안 여객선 서비스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6일 이주영 장관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연안해운 공영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성이 떨어지는 노선에서 직접 여객선을 운항하는 제도다. 섬이 많은 전남지역에는 현재 34개 선사가 55개 항로에 92척의 여

객선을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 항로가 적자로, 선사의 추가 투자가 거의 없어 10년 이상된 노후 선박들로 운영되고 있다. 전남에서 운항되고 있는 연안여객선 수는 전국(173척)의 53%를 차지하고 있다.

권준영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 “공영제는 안전과 서비스를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는 것”이라면서 “준공영제로 운영 중인 낙도 보조항로 26개를 완전한 공영제로 전환하는 내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26개 항로에서 운영비로 매년 총 100억원가량을 보조하고 있다. 선박 건조

비용으로도 해마다 50억~60억원을 지원한다. 일각에서는 수익성이 낮은 항로의 선사로부터 항로 운영권과 선박 등을 사들이는 데 드는 비용이 1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도 나온다. 안전을 확보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면 인건비나 선박 수리비 등의 운영비도 지금보다 더 많이 들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공영제 도입을 놓고 외국 사례와 소요 재원을 분석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권 과장은 “공영제를 한다면 운영 기관이 있어야 할 텐데 기존 기관이 맡거나 별도의 기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익성이 좋은 관광항로는 굳이 정부가 개입해 공영제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예산 등의 문제로 완전한 공영제

를 도입하지 못하더라도 현 준공영제는 손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권 과장은 “선사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는 경영 효율화가 어렵다”면서 “안전에 투자하는 비용이나 선원 인건비를 보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연안여객선 공영제를 검토하는 동시에 여객선 현대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권 과장은 “국내에 20년 넘는 노후선박이 42척 있다”면서 “사업자들이 부담을 적게 지면서 20년을 주기로 선박을 교체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이르면 이달 중 ‘해양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혁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軍 바꾸자”…병영문화 혁신위 발족

병사·부모·시민단체 참여 연말까지 혁신안 채택

최근 군 관련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현역 및 전역 병사와 그 부모는 물론 시민단체 인사까지 참여하는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6일 발족했다.

이날 용산 육군회관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한민국 국방부 장관, 백승주 국방부 차관 등 군 주요 인사와 병영문화혁신위의 전문·실무·자문위원 94명이 참석했다.

육군은 “동부전선 GOP 총기사건,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등으로 총체적 위기에 놓인 군은 ‘이번이 마지막이다’라는 절박함과 ‘하루빨리 국민께 희망과 믿음을 드려야 한다’는 절실함으로 병영을 혁신하고자 한다”면서 “국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 병영 저변의 실상을 진단하고 내과·외과적 대수술을 통해 ‘인권이 보장된 병영’을 만들고자 한다”며 위원회 발족 배경을 설명했다.

병영문화혁신위는 민관군이 함께 힘을 모아 행복한 병영을 만들겠다는 의미로 ‘육군 글로벌 위원회’로 명명됐다.

이 위원회는 전방 GOP와 해안소초 등의 현장 방문과 공청회,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오는 12월 ‘병영문화 혁신안’을 채택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지난 6월 발생한 22사단 GOP 총기사건을 계기로 발족이 결정됐고 최근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이 불거지면서 조속히 보장됐다.

위원회 산하에는 ▲북부제도 혁신 ▲병영문화 및 환경 ▲장병 리더십 및 윤리 증진 등의 3개 분과위가 구성된다. 각 분과위에는 13~14명의 민간 전문가와 정부기관 관계자가 전문위원으로 편성되고, 7~8명의 군 관계자가 실무위원으로 참여한다.

/박지경기자 jkpark@

영산강사업단, 건설사에 308억 부당면제

감사원 “공사 계약기간 무단 연장해 보상금 부과 안해”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이 4대강 사업의 일부인 영산강 하굿둑 구조개선 사업을 하면서 민간업체가 내야 할 300억원대의 보상금을 부당하게 면제해 준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6일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신고사건 이첩에 따라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두 차례 영산강사업단에 대한 감사를 벌여 결과를 공개했다. 영산강 하굿둑 구조개선 공사는 이명박 정부의 역점사업인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의 하나로, 영산강사업단은 지난 2009년부터 이 공사를 맡아 진행해 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 사업단은 지난 2011년 영산강 하굿둑의 1·2·3공구에 대해 민간 건설사들과 2차 공사를 연말까지 마치는 계약을 체결하고 준공기한을 부당하게 60일 연장했다. 이로 인해 사업단은 원칙대로라면 건설사들로부터 받아야 했을 공사지연 보상금 165억원을 받

지 못하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단은 준공기한을 2012년 12월로 정했던 1공구 3차 공사에 대해서도 계약기간을 부당하게 294일 연장해 줘 이에 따른 지연 보상금 81억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사업단은 1공구의 2차 공사에 대해서는 준공기한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준공처리해 해주며 지연에 따른 보상금 62억원을 부과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이런 업무 처리들로 인해 사업단이 부당하게 면제해준 지연 보상금은 모두 30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농어촌공사에 1공구 2차 공사를 한 업체에 지연 보상금 62억원을 부과하도록 요구했다. 또 부당업무에 연루된 영산강사업단 단장과 부장 등 관련자 12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하거나 비위내용을 향후 인사에 참고하도록 통보했다.

/연합뉴스

호남고속철 개통대비 연계교통망 구축

철도시설공단 진입로 개설 등

한국철도시설공단은 6일 개통을 앞둔 호남고속철도와 다른 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을 위해 철도역 중심의 연계교통망 구축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라 ▲역사 진입도로 건설 ▲철도역 접근도로의 도로표지판 정비 ▲기존 운행 중인 시내버스 배차 간격 및 노

선 조정 ▲시외버스의 철도역 경유 ▲택시 영업구간 조정 등이 이뤄진다.

또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 도착한 이송객의 역사 접근 거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광장을 정비하고 정류장에는 눈, 비 등을 피할 수 있는 시설물이 설치된다. 이 같은 개선 사업은 철도공단과 철도공사, 해당 지자체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역할분담을 통해 진행된다.

/연합뉴스



6일 경기도 과천시 서울 경마공원 컨벤션홀에서 열린 전북-데이(day)선포식에서 신우철 완도군수 등이 완도 대표음식으로 개발된 전북해조류 비빔밥을 만들고 있다.

〈완도군 제공〉

“삼복날은 완도 전북 먹는 날” 완도군, 전북데이 선포…대국민 판촉

“매년 삼복(三伏)날을 완도 전북 먹는 날로 선포합니다.”

완도군이 지역 특산품인 전북의 소비촉진을 위해 매년 조복·중복·말복 등 삼복날을 전북-데이(day)로 정하고 대국민 판촉에 나섰다.

군은 6일 경기도 과천시 서울 경마공원

컨벤션홀에서 신우철 완도군수, 김영록 국회의원,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도권향우회, 어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데이 선포식을 열었다.

선포식에서는 대한양계협회와 전북 판촉 협약, 전북해조류 비빔밥 비비기 퍼포먼스, 전북요리 시식회 등이 다채롭

게 열렸다. 인기가수 홍경민은 완도 전북 명예면장으로 위촉됐다.

신 군수는 “최근 3년간 복날에 판매되는 보양식 중에 전북 매출이 가장 많이 늘었다”면서 “소비자들이 값싸게 전북을 즐길 수 있도록 유통 마진을 줄이고 다양한 요리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완도지역 전북양식장은 여의도 면적의 11배에 달하는 3161ha에 달하며, 연간 전국의 80%에 해당하는 7400톤을 생산해 약 4000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ejchung@kwangju.co.kr

백원광주안과

노안(老眼)도 치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광고를 보면서
돋보기를 쓰고 보시나요?
아니면, 쓰던 안경을 벗고 보시나요?

노안시력교정수술로 편한 생활이 가능 합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병당을 찾으세요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병당을 찾으세요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병당을 찾으세요

※부작용:수술초기 야간 빛반전, 노안라식 수술시 건조증등이 생길수 있습니다.

의료광고심의필 제 140611-증-59153호

Beautis
Clear skin & laser clinic

맑은피부과·성형외과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레이저 시술 전문클리닉
•피부과 전문의 진료

레이저센터 (최신 30여종)

항노화치료

기미클리닉

성형외과

지방이식
출입

모발이식
관리

에스테틱

맑고 깨끗한 피부제안
For your best skin

- 최신레이저 30여종 보유

① 리프팅레이저 : 울베라, 세미라, 에너쥬 복합치료
② 여드름 레이저 : 스무스스 아이슬, 브이엘, 프락셀
③ 제오 레이저 : 정물렉스, 다이오우드제오
④ 피부 미백 : 루메나스원 엑셀V, 쥘름렉스, 루비레이저
⑤ 주름·충터 : 프락셀 듀얼, 울트라펄스임코르, 프락셀로 인트라세, 프락셀 제너
⑥ 모공 : 벤티지, 프락셀5중
⑦ 비관 : 내오울드라, 지방흡입

진료시간

상무점 : 평 일 : Am 9:30 ~ Pm 7:00
·토요일 : Am 9:30 ~ Pm 4:00
·관리실 야간회진 : Am 9:30 ~ Pm 8:30
→점 : 평 일 : Pm 1:00 ~ Pm 2:00
문암점 : 평 일 : Am 9:00 ~ Pm 6:30
·토요일 : Am 9:00 ~ Pm 4:00
※100% 레이저시술 전문기관 진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무점] 상무지구 미즈피아병원B/D 1F | Tel : 385-7575, 1177 | 에스테틱 : 385-0009

[문암점] 문화예술회관 건너편 3F | Tel : 528-1415 | 무료전화 : 080-707-7575 | 에스테틱 : 525-7555